나라현・중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5 탄　다카마쓰즈카 고분・기토라 고분

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섬서성)이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 5 탄에서는 다카마쓰즈카 고분과 기토라 고분을 소개합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고분으로, 1972 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석실에서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983 년에는 같은 아스카무라에 있는 기토라 고분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극채색의 벽화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큰 화제가 되어, 이 발견을 기념하여 서쪽 벽에 그려진 '여인 군상' 등의 기념 우표가 발매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두 고분 다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고분의 벽화에는 고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동서남북 사방의 수호신인 청룡, 백호, 주작※1, 현무의 사신이 그려져 있어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다카마쓰즈카 고분의 주작은 도굴 시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고도 장안이 있던 산시성에도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1960 년부터 1962 년에 발굴된 영태공주묘에 그려진 '궁녀도'는 다카마쓰즈카 고분 서쪽 벽에 그려진 '여인 군상'과 구도와 소지품이 비슷하여 당시 당나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현과 산시성은 고고학 분야에서의 교류도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와 산시성의 서북대학이 고고학 및 보존과학 등의 전문분야에서 연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류사업에서 통역・번역 등을 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오춘란)

산시성 건릉 외관
사진제공 : 중국주오사카관광대표처

영태공주묘・궁녀도(건릉박물관)
사진제공 : 산시성 인민대외우호협회